

일계인디아스포라 브라질 이주사와 전시 문화콘텐츠 고찰*

林 永 彦**

(e-mail : yimye@hanmail.net)

目 次

- | | |
|------------------------------------|---------------------------------|
| I. 연구목적 | IV. 일계인 해외이주자료관 건립과
전시문화의 특성 |
| II. 일계인 브라질이주사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1. 해외이주자료관의 건립과 전시문화 |
| III. 일계인 브라질 이주역사와 일본
환류(역이민)현상 | 2. 해외이주자료관 전시자료의 특성 |
| 1. 일본인의 해외이주와 재외방인 | V. 결론 및 시사점 |
| 2. 1980년대 이후 일계브라질인의 환류 | |
-

I. 연구목적

일본인의 해외 이주사는 1866년 에도막부가 해외도항금지령을 폐지한 이후 145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다. 일본인의 해외 이주가 시작된 이후 일본인 이주자를 포함하여 그 자손들에 해당되는 해외 거주 일계인의 숫자는 250만 명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반대로 1980년대 전후 일본사회의 글로벌시대 도래와 함께 일본에서의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약 30만 명의 일계인과 그 가족이 도일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인의 해외이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09).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独立行政法人国際協力機構横浜センター (2004) 『海外移住資料館展示案内-われら新世界に参加す』算用印刷株式会社、p.3.

주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일계인’들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일본에서는 북미와 남미의 일계인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²⁾.

일본에서 일계인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촉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 활동이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1945년 이전부터 존재한 일계인이란 원래 일본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자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브라질과 미국대륙의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 출신의 많은 일계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에 외국인노동자나 가족비자로 입국하여 일계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이 주목받아 왔다.

일계인노동자의 남미로부터 일본으로의 이주물결은 1990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개정되어 일반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미숙련노동을 일계인에게만 허가하는 법적조치가 내려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남미국가로부터 일계인의 도입은 입국관리법 개정이후 더욱 급증하게 된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은 해외이민의 ‘환류(역이민)’라는 일계브라질인의 일본에서의 노동취업을 본격화시켰고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무려 10만 명의 일계인들이 노동이민으로 도입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³⁾. 이러한 배경에는 남미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일계인’ 청년노동자들의 일본이주에 대한 열망과 일본경제계의 노동력부족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일본정부의 입관법의 개정은 일계인들의 일본취업이 용이하도록 ‘정주자’라는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남미로부터 일계브라질인 이민의 ‘환류’현상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⁴⁾.

일계인이란 일반적으로 큰 범주에서 볼 때 일본 내에서는 일계아메리카인과 일계브라질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일계브라질인의 정의는 일계2세~3세 이외에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민1세, 일본과 브라질의 이중국적자의 2세 및 일본인의 배우자인 비일계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일계아메리카인(북미) 민족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문으로는 임영언(2010) 「일계인디아스포라: 초민족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日本文化學報』 第46輯 참조.

3) 이러한 배경에는 1990년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경제의 호황에 의한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 측의 수요증가와 일계인의 취업의욕이 합치되어다는 점, 입국관리법개정으로 일계인들에게 비자취득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4) 1990년 6월에 실시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은 일계인에게 ‘일본인의 배우자 등(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자녀로 출생한 자 및 일본인의 특별양자)’, ‘정주자(일본인의 손자 등, 일계 2세 및 3세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포함한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이 주어지고 합법적으로 단순노동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정의는 일계아메리카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계브라질인은 외국인노동자로서 일본에서의 생활이 부각되어 있고 일계아메리카인은 해외에 이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계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의 경우 이들에 대하여 일계미국인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내 정치적인 활동과의 연계, 그리고 고베지진과 같은 지원활동 등 최근에는 종래의 의미와는 다른 초민족공동체 형성과 그들의 사회활동에 주목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이주정책은 이민1세를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송출한 중남미 이민자들에 대하여 일본 내 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른 노동자 우대에 의한 유입정책, 경제적 격차보다는 북미 선진지역에 진출한 일계인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국가발전과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이중구조의 사회적 공동체 공간형성의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 1868년 메이지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민의 정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밖으로 나가는 이민, 즉 출이민(出移民)이라는 개념이 강했다. 그러나 1980년 중반이후 일계브라질인의 일본으로의 환류이민은 돈을 벌기(테카세기) 위한 입이민(入移民) 위주로 초국적인 글로벌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민족·다문화현상으로 새롭게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출이민이라는 이민사, 특히 일계브라질인 이민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이민사를 다루는 해외이주자료관에 대하여 전시문화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⁵⁾

II. 일계인 브라질이주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브라질을 향했던 일본이민의 역사는 거의 1세기동안에 지속되어 왔으며, 따라서 연구 분야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일계인 3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새로운 ‘일계인’ 문화형성은 일계인 연구의 새로운 동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1908년 시작된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은 100여년이 경과된 현재 1945년 전후 이주자를 포함하여 당시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태어나 자란 브라질 출생 일계인 수는 오늘날까지 140만 명을 초과하였다. 오늘날 브라질은 해외에서도 다수의 일본인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에 포함된다. 일본이민 80주년 기념으로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일계인 수가 180만 명 정도인데 이러한 차이의 발생배경에는 젊은이들 위주로 점차 일계인

5) 임성모(2008)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학사학연구』 제103집, p.185.

사회의 정체성의 변화가 크게 관계하고 있으며 일계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45년 해방이전 농업이민으로서 브라질에 건너간 일본인은 제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도시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사이토(齊藤, 1959; 1960)연구에 의하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방이전의 일본인 이주자가 빈번하게 지역이동을 함으로서 사회경제적 상황을 상승시키고 해방이후 현지에서 영주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⁶⁾. 특히 그는 계속된 일련의 연구에서 브라질이주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성된 일본인 이민자의 특징과 브라질에서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⁷⁾. 또한 이시카와(石川, 1989)는 이민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브라질에서의 일본인 이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80년대 브라질로의 일본인 이민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있다⁸⁾.

일계인과 관련하여 일본의 브라질 이민송출정책이나 브라질의 이민유입정책, 이민사 등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일본브라질교류사편찬위원회(1995)가 있다. 이 연구는 일본과 브라질간의 수호통상조약 100주년 기념으로 간행되어 일본과 브라질의 외교관계, 이민정책과 이민사, 문화교류 등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파우리스타신문사편(1996)이 각 분야에서 일본과 브라질의 가교역할을 한 인물을 1,000여명 소개하고 있다. 상파울로 인문과학연구소도 같은 시기에 브라질에서 간행되었던 『브라질일본이민사연표』(1997)를 일본에서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일계인 일본 환류에 대한 일계브라질 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본 내 일계인 집거지는 자동차, 가전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산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계인 연구자로서는 이케가미(池上重弘, 2001), 사카이(酒井, 2001), 이쿠노(生野, 2003), 히로타(廣田, 1997)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연구자들은 일본 아이치현(愛知縣)이나 시즈오카현(靜岡縣)을 중심으로 하는 도카이지역(東海) 및 군마현(群馬縣) 중심의 기타간토(北關東)지역, 오키나와현(沖繩縣) 출신의 일계인이 집거하는 요코하마시 쓰루미쿠(横浜市鶴見區) 등 일계인 커뮤니티를 주요 연구대상지역으로 삼아왔다. 기타지역에 분산되어 생활하고 있는 일계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가지타(梶田, 2003)이다.

이나카미(稻上, 1992)는 마크로 요인측면에서 일본 내 외국인 노동시장과

6) 齊藤広志(1959) 「ブラジルにおける日系人の人口と地域的移動」 『南米研究』 6, pp.26-32.

7) 齊藤広志(1960) 「ブラジルにおける邦人移住者の地域的移動」 『国際経済研究』 10, pp.195-247.

8) 石川友紀(1989) 「ブラジルにおける日本移民の地域的分布と職業構成の変遷第二次世界大戦前を中心に」 『琉球大学法文学部紀要』 史学・地理学編32, pp.1-56.

기업 속성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본 내 일계인 노동시장은 부품제조 및 제1차 도급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중간소개업자인 파견업자와 브로커의 개입으로 공동체 공간이 형성되었고 아시아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느슨한 이중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단노(1999, 丹野)는 미크로적인 측면에서 일계인브라질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기업이 원래 일계인을 고용하려고 했다가보다는 하청업자로 활용하려고 한 결과 일계인 노동 장소가 다양화되었으며 일계인의 고용확대는 일계브라질인, 일계페루인 등 일계인 사회공동체 형성의 다양화와 계층성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네다(兼田, 2001)와 나카바(中馬, 2001)의 연구에서는 일계인노동자의 고용이 3D직종의 인재확보, 제품생산 부문이나 미숙련공정 등 단순작업의 불안정노동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카지타(梶田, 2002)는 일계인의 취업형태에 대하여 직접고용보다는 중간소개업자의 인재파견회사에 의한 간접고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기업의 고용조정기능의 역할과 종래 특정지역의 제조업에 종사하였지만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종사하는 직종에서 다양화와 분산화의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일본사회에서 사용되는 ‘일계인’이라는 용어는 ‘브라질인 노동자’를 의미하며 일본사회, 일본문화와의 동질성이나 친화성보다는 브라질의 문화적 배경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브라질인의 이질성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과 더불어 기존의 일계인노동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격차와 일본정부의 노동력 수급정책의 결과라는 마크로 요인, 일계인이 3D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인식의 미크로 요인 등에 집중되어 왔지만 여기에서는 일본인의 과거와 현재에 해당되는 브라질 이주사와 일본 내 해외이주자료관의 전시문화에 주목하여 현대적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Ⅲ. 일계인 브라질 이주역사와 일본 환류(역이민)현상

20세기 초 북미에서 배일감정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여타지역으로의 일본인의 해외이주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었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북미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민송출을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남미서해안의 페루 등지로의 이주를 계획했지만 초기단계에서 좌절되었다. 최종적으로 당시 일본정부 당국자가 가장 조건이 양호한 곳으로 판단한 남미대서

양 연안의 브라질이 북미의 합중국 및 캐나다를 대신하여 일본인의 이주지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908년 4월에 고베항을 출발한 카사토마루(笠戸丸)에 승선한 781명의 일본인 이주자가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함으로써 남미로의 일본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1차세계대전 중(1914-1918) 일본경제가 일시적인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전후 경기불황으로 농촌에서 불황이 만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국내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일본정부는 농촌으로부터 남미로의 이민송출을 일본국내 문제해결의 중요한 해결책으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표 1>은 일계브라질인 디아스포라의 출신지별 일본국내 송금액수를 나타낸 것이다. 1918년 당시 일본사정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일계브라질인의 대부분이 일본농촌 지역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신지별 송금액수는 후쿠오카현 출신자의 송금액수가 전체 7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구마모토현 7.9%, 히로시마현 7.0%, 오키나와현 4.8%, 가고시마현 4.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 일계브라질인 디아스포라 출신지별 송금액(1918년)⁹⁾

출신지	송금액	비율(%)
오카야마현	101.66	1.1
야마구치현	137.24	1.4
후쿠오카현	6974.04	73.7
가고시마현	381.24	4.0
오키나와현	457.48	4.8
히로시마현	660.80	7.0
구마모토현	752.19	7.9
합계	9464엔 75전	100

브라질에서는 1910년대에 커피농장의 노동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독립농업을 원하는 일본인만의 ‘이주지(자작농 집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1920년이 되면 일본정부는 돈 벌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현지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지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은 1925년부터 이주가 시작된 상파울로주 서부에 위치한 아리안사 이주지였다. 이민자들은 주로 나가노현, 돗토리현, 도야마현 등 이주조합과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속속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정착지에서는 ‘커피를 만들기보다는 사람을 만들어라’ 라는 높은 이상을 목표로 산림을 벌채하고 야산을 태워 농지를 만들고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9) 外交資料館所藏「第7回送金目録」「在外日本人送金送達雜件」第三卷參照.

정착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1924년에 ‘배일이민법’을 제정하여 일본인 이민자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다음해인 1925년부터 브라질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급증하였다. 1908년 ‘카사토마루’의 출발로부터 1941년에 일본을 출발한 최후의 이민자수송선 ‘부에노스아이레스마루’의 브라질항해까지 33년간 약 18만 8천명의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약 12만 명이 1925년부터 1941년까지 16년 동안에 브라질로 건너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일본인의 남미 이주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은 중남미에 거주하는 일계인디아스포라와 그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이주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에서 적성국의 외국인이 된 일계인디아스포라들은 이들 정부가 정해진 도시로 이주당하거나 도시에서 지방으로 강제 이주당했지만 북미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남미에서 가장 엄한 강제조치가 취해진 페루에서는 항구주변이나 특수군사지정지역으로부터 수 백 명에 달하는 일계인거주자와 가족을 다른 곳으로 단기간에 강제 이주시켰다. 또한 페루의 일계인사회 지도자 160여명이 태평양 전쟁발발 직후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나중에 미국으로 보내어져 수용소에 감금당하기도 했다.

남미에서 일계인디아스포라 수가 가장 많았던 브라질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의 여파가 일계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브라질연안에서의 독일인에 대한 적대행위에 분개한 대중들의 독일인 소유상점의 약탈이나 파괴행위로 이어지면서 동맹국인 일본인 상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브라질 상파울로 시와 다른 주에서는 일계인이 특정지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일부 일본인 이주자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오지의 농업노동자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미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일본인거주자의 대부분이 강제 수용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계브라질인의 브라질 이주특징은 대부분 가족중심의 이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에는 단신이주자도 있었지만 전체의 6%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브라질 이민 초기에는 커피농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차츰 현지에 적응하며 이주지에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1925년부터 미국에서 일본인 이민이 금지되자 일본정부는 미국 대신 브라질로 이주지를 선회하였다. 미국에서의 교훈으로 일본정부는 브라질이민자들에게 도항비를 지급하고 이민교육을 실시하여 이민에 의한 배일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구마모토, 후쿠오카, 오키나와, 홋카이도, 히로시마현을 중심으로 전개된 브라질 이민은 1908년부터 1941년까지 포함 186,000명을 초과

하였다¹⁰⁾. 그러나 1934년에는 브라질정부가 중앙집권적 신헌법을 공포하고 '외국인 이주자 2% 제한법'을 제정하자 일본인 이민자는 대폭 감소하였다. 1937년에는 브라질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정책이 실시되어 일본어교육금지, 일본어신문과 잡지 단속강화, 일본어 신문정간, 이민사회의 교육문화 활동의 제한으로 한때 일본귀국을 선택하는 역이민자(환류)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일본이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연합국의 적성국가가 되자 브라질에서의 일본어 신문이 줄줄이 정간되었다. 이렇게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일계브라질 사회는 세대간 대립이 심화되었고 정체성의 혼란은 1955년까지 계속되었다. 일계브라질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1945년 이후에도 약 10년간 지속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일본에서 돈 벌기(데카세기) 위한 역이민이 본격화되면서 정체성문제가 다시 대두되기도 하였다.

1945년 이후 한때 주춤하던 일본인의 남미로의 재이주가 일계브라질인의 노력의 결과 재개되었다. 일본정부로부터 도항비가 지급되어 18가족 54명이 1953년도에 '산토스마루(サントス丸)'을 타고 리오로 건너갔으며 또한 같은 해 22가족 112명도 네덜란드 기선 '루이스호(ルイス号)'를 타고 산토스에 도착하여 남미로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브라질 이외에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도미니카 등에도 이주자들이 건너가게 되었다. 이들 국가의 도항자들 가운데에는 오키나와 출신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1960년대까지 일본에서 이민자들의 해외로의 도항은 배를 이용한 항로에 의존하였다. 특히 남미로의 집단이주에서는 요코하마나 고베를 출항하는 이민선이 크게 활약했다. 그러나 하늘길이 열리면서 점차 비행기를 이용하는 이민자들이 증가하였다. 1960년대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맞물려 일본국내에서의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해외이주자들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 남미로의 마지막 이민선은 고베항에서는 1971년에 출항한 '브라질마루(ブラジル丸)'이었고, 요코하마에서는 1973년 285명의 이주자를 태우고 떠난 '니혼마루(日本丸)'이었다.

일본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본 내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목 받게 된 일계브라질인의 일본 환류현상은 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급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는 일계인이란 남미 브라질로부터 돈 벌러 온 외국인(出稼ぎ: 데카세기)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정부는 1990년 6월에 실시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의 개정으로 불법취업조장 죄의 벌칙이 고용주에게도 부과되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포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법으로 일계인, 즉 일본인의 배우자(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자

10) サンパウロ人文科学研究所編 (1997) 『ブラジル日本移民史年表』無明舎出版.

너로 출생한 자 및 일본인 특별양자), 정주자(일본인의 자손 등, 일계 2세 및 3세 외국인)들은 취업을 포함한 일본에서의 제반활동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합법적으로 단순노동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¹¹⁾. 입국관리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일계인의 경우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민1세나 이중국적자에게는 입국이나 체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입국관리법 개정 후에는 외국적의 2세~3세에게도 합법적인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비일계인이라 하더라도 일계3세까지 배우자의 경우 일계인과 동등한 특별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일계인 1세부터 시작되어 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계인 2세~3세까지 확대된 남미로부터의 외국인노동자는 당초 일본정부가 '일계인의 돈벌이 노동', '일계인의 U턴 현상'이라고 부른 점도 '해외에 이주한 일본인'이 '일계인'의 원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은 일계인 이외의 불법취업외국인의 유입을 막고 일계인을 합법적인 노동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일본사회의 노동력부족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되었다¹²⁾. 글로벌시대 일본 내 국제노동력 불균형을 배경으로 일본정부는 일본 정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이라는 체류자격으로 일계인들에게 합법취업을 직접 보장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1. 일본인의 해외이주와 재외방인¹³⁾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인의 해외이주 역사는 1866년부터 시작하여 만주국이 성립하는 1938년경까지 하와이와 북미로 약 37만, 중남미로 약 25만 명 등 약 142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전후 1952년경부터 해외 이주자가 증가하여 1989년까지 40년간 일본의 일계인은 북미 14만, 중남미 9만 명의 일본인이 이주해 나갔다. 이주지에서 태어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일계인 2-3세까지를 포함하면 미주지역 일본인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일본 외무성은 2005년 도에 전 세계 '일본인' 수를 약 26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최근 일본 외무성이 2008년도 말에 발표한 재외방인은 1,116,993명으

11) 渡辺雅子編著(1995) 『共同研究出稼ぎ日系ブラジル人上論文編 [就労と生活]』明石書店、p.26.
1990년 입관법 개정에 의해 일계인에게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라는 자격이 주어졌다. 일반적으로 당시 일계인들에게는 2세는 3년, 3세는 1년 비자가 발급되었음.

12) 渡辺雅子 (1995) 『共同研究出稼ぎ日系ブラジル人 (上) 論文編・就労と生活』明石書店、p.20.

13) '일계인(닛케이진)'의 정의는 일본이외의 해외지역에 이주한 후 거주하는 해당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을 일컫는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인 장단기 체류자를 총칭하여 '재외방인'이라고 칭함.

14) 米山裕・河原典史編 (2007) 『日系人の経験と国際移動：在外日本人・移民の近現代史』人文書院、p.241.

로 전년도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인의 해외거주는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99년 이래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상회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표 4>1990년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방인(일본인)의 추이¹⁶⁾ (단위: 명)

연도	장기체류자	영주자	합계
1990	374,044	246,130	620,174
1991	412,207	250,842	663,049
1992	425,131	254,248	679,379
1993	432,703	254,876	687,579
1994	428,342	261,553	689,895
1995	460,522	267,746	728,268
1996	492,942	271,035	763,977
1997	507,749	274,819	782,568
1998	510,915	278,619	789,534
1999	515,295	280,557	795,852
2000	526,685	285,027	811,712
2001	544,434	293,310	837,744
2002	586,836	284,915	871,751
2003	619,269	291,793	911,062
2004	659,003	302,304	961,307
2005	701,969	310,578	1,012,547
2006	735,378	328,317	1,063,695
2007	745,897	339,774	1,085,671
2008	755,724	361,269	1,116,993

해외에 거주하는 일계인들이 주로 남미 브라질을 중심으로 진출하게 된 이유는 당시 호주, 캐나다, 미국지역으로부터 이민제약을 크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이전 일계인이 진출했던 국가는 대부분 미국이며 1898년경 한때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이 일어나 일정기간 동안 이민을 억제하기도 하였다. 일본정부의 해외이민정책은 1920년경에 재개되었으며 1921년에는 내무성 내에 사회국이 설치되어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1929년에는 척무성이 이민업무를 총괄하였다.

해방 이후 일본의 이민정책은 해외로의 대량송출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정부

15)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 참조. 일본인 남녀별 분포는 1999년 이래 처음으로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초과하였지만 2008년도 현재에도 여성이 전체의 51.7%로 남성보다 37,000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 p.10 참조.

는 1954년경 '이민5개년 계획', '해외이주 10개년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유입국 중심의 동화주의를 표방한 바 있다. 전후이민은 지역적으로 미국 51.4%, 브라질 27.2%, 아르헨티나 4.6%, 캐나다 4.3%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5년을 기준으로 일본국적 일계인의 숫자는 약 72만 명으로 미국이 약 21만 명, 브라질이 약11만 명 영국이 3만7천명으로 직업별로는 기업 관련자가 64.4%, 유학생과 연구원이 2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 전후 해외이민역사가 100여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일계인의 차별문제, 중남미일계인 지원문제, 80년대 이후 증가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이주자들 중심의 복지문제와 세대교체, 정체성, 교육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

<표 5> 재외방인 해외진출 지역별 추이¹⁷⁾

지역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	증감
전 세계	837,744	871,751	911,062	961,307	1,012,547	1,063,695	1,085,671	1,116,993	100%	+2.9%
아시아	173,824 (20.8)	187,952 (21.6)	206,521 (22.7)	234,734 (24.4)	260,747 (25.8)	277,735 (26.1)	287,157 (26.5)	292,632	26.0%	+1.9%
대양주	56,205 (6.7)	61,698 (7.1)	63,018 (6.9)	67,887 (7.1)	72,871 (7.2)	78,099 (7.3)	82,491 (7.6)	86,553	7.8%	+4.9%
북미	347,389 (41.5)	352,358 (40.4)	369,639 (40.6)	380,228 (39.6)	397,585 (39.3)	414,552 (39.0)	422,116 (38.9)	436,532	39.1%	+3.4%
남미	96,909 (11.6)	95,652 (11.0)	94,310 (10.4)	92,676 (9.6)	89,701 (8.9)	88,662 (8.3)	85,974 (7.9)	85,750	7.7%	-0.3%
서구	140,613 (16.8)	150,587 (17.3)	152,833 (16.8)	159,528 (16.6)	162,643 (16.1)	174,138 (16.4)	174,713 (16.1)	180,742	16.2	+3.5%

주) 기타지역은 1%미만으로 중미·카리브, 중·동구, 구소련, 중동, 아프리카, 남극 등이 해당됨. ()은 %임.

<표 5>는 최근 재외방인의 지역별 해외체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재외방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북미지역이 3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시아지역이 2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미지역이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지역은 증가추세에 있다. 남미지역의 경우 영주자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청년들의 일본진출로 인하여 감소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0.3% 감소하고 있다. 재외방인이 가장 많은 국가별로는 미국이 386,328명으로 1위이고 중국이 125,928명으로 2위, 호주가 66,371명으로 3위, 영국이 63,017명으로 4위를 나타내고 있다.

17)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 p.11 참조하여 작성.

2. 1980년대 이후 일제브라질인의 환류

1980년대 일제브라질인 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일본 환류에 의한 일제인의 급격한 감소현상이다. 글로벌 시대 일제인들이 일본에 입국하여 노동자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초기에는 브라질로부터 친족방문으로 도일한 일제인들이 점차 일본사회에서 노동자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로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한 일제인들은 1990년 '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일본인 배우자', 혹은 '정주자'로서 일본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6> 해외 체류 재외방인의 수(단위: 명)

국가 (지역)	2005년			2007년			2008년		
	합계	장기 체류자	영주자	합계	장기 체류자	영주자	합계	장기 체류자	영주자
북미	406,285	261,845	144,440	431,137	271,196	159,941	445,824	275,570	170,254
미국	351,668	235,824	115,844	374,732	247,771	126,961	386,328	250,294	136,034
캐나다	45,914	20,471	25,443	47,376	17,606	29,770	50,201	19,186	31,015
멕시코	5,530	3,528	2,002	5,849	3,859	1,990	6,046	4,037	2,009
남미	89,701	5,347	84,354	85,974	5,146	80,828	85,750	5,613	80,137
아르헨티나	11,917	559	11,358	11,562	413	11,149	11,696	446	11,250
콜롬비아	1,047	265	782	1,270	378	892	1,277	380	897
칠레	1,074	591	483	1,152	654	498	1,170	662	508
파라과이	3,694	303	3,391	3,672	315	3,357	3,712	326	3,386
브라질	65,942	2,217	63,725	61,527	1,894	59,633	60,578	2,186	58,392
페루	1,734	423	1,311	2,622	519	2,103	3,020	551	2,469
볼리비아	2,883	297	2,586	2,716	262	2,454	2,770	263	2,507

<표 6>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방인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북미의 미국지역과 남미의 브라질의 재외방인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브라질지역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재외방인 수가 감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일제브라질들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환류(역이민)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본후생성 '외국인고용상황보고(2003)'에 의하면 일본 각 기업이 직접 고용

하고 있는 일계인노동자의 수는 1993년에 59,400명, 1997년에 62,600명, 2002년에 50,40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각 기업의 평균인원을 보면 1993년에는 5.11명이었지만 2002년에는 2.35명으로 거의 두 배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표 7> 재외방인의 직업별 분포(2008년 10월 기준)¹⁹⁾

지역별 (%)	민간기업 관계자(%)	보도관계자 (%)	자유업관계자 (%)
아시아(26.0)	128,396(56.2)	469(27.7)	5,164(24.1)
대양주(7.8)	5,460(2.4)	35(2.1)	1,833(8.6)
북미(39.1)	56,326(24.7)	723(42.8)	6,414(30.0)
중미·카리브(0.8)	1,850(0.8)	7(0.4)	348(1.6)
남미(7.7)	1,496(0.7)	16(0.9)	345(1.6)
서구(16.2)	26,598(11.7)	354(20.9)	6,740(31.5)
중·동구, 구소련(0.7)	2,410(1.1)	36(2.1)	247(1.2)
중동(0.9)	3,897(1.7)	19(1.1)	102(0.5)
아프리카(0.7)	1,867(0.8)	32(1.9)	201(0.9)
합계(100)	228,301(100)	1,691(100)	21,394(100)

주) 해외재류 방인 수 통계에서 동거가족은 제외하고 이주자만의 숫자를 제시한 것임.

<표 7>은 재외방인의 직업별 분포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 본기업의 업종별 분포기업을 보면 일반기업의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도관계자나 자유업관계자의 분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들 중에서도 아시아지역과 중동지역에는 일계진출기업이 많아 기업관계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양주지역은 북미나 서구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유학생이 많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의한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자가 많은 것을 나타냈다.

IV. 일계인 해외이주자료관 건립과 전시문화의 특성

1. 해외이주자료관의 건립과 전시문화

일본인의 해외진출은 지금으로부터 140년 이전인 메이지원년에 하와이로의 이민이 최초였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해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해외진출자는 1945년 이전까지 약 77만6천여 명, 해방이후에는 26만2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일본인 이주자들은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일계인사회

18) 渡邊博顕 (2004) 「間接雇用の増加と日系人労働者」 『日本労働研究雑誌』 No.531/October, p.36.

19)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 p.34 참조하여 작성.

를 형성하였으며 현지에서 일본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가며 현지사회의 문화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해외에서 생활하는 이주자 및 일계인 수는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1908년부터 시작된 일본인의 브라질 이주역사와 1980년대 전후 일계인의 환류현상이 초국적인 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글로벌시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 탄생한 것이 일계인을 위한 해외이주자자료관이다. 일본 JICA의 해외이주자자료관은 일본으로부터 해외로 이주한 이주자의 역사, 생활, 체험이나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일계인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 등을 전시한 일본인 이주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02년 10월에 개관한 이래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본인 해외이주의 역사를 전달하거나 일본국내에서 일하는 일계인과 그 자손, 그리고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설전시, 특별전시, 공개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표 8참조>.

<표 8> 해외이주자자료관의 역사와 전시회 개최현황²⁰⁾

해당연도	자료관 개관 및 활동내용
2002년 10월 4일	해외이주자자료관 개관
2003년 10월 4일	자료관 개관 1주년기념특별강연회 ‘일본인과 신세계’개최
2003년 3월 9일	특별기획전 ‘마쓰리전-외국문화가 된 일본의 마쓰리’ 개최
4월 8일	일본전황 해외이주자자료관 방문
2005년 7월 26일	특별전시, 요코하마와 하와이 역사기행, ‘알로하서즈와 일본인이민 역사’ 개최
9월 25일	‘해외이주자자료관 소식지’ 창간
11월 1일	기획전시 ‘히로시마는 어째서 해외이주자가 많은가?’개최
11월 11일	특별전시 ‘봄과 여름 배달되지 않은 편지전’ 개최
2006년 3월 28일	특별전시 ‘히라오하치 사부로우진’ 개최
5월 12일	특별전시 캐나다에 이주한 일본인의 초상화전 개최
8월 15일	특별전시 ‘과라과이전’개최
2007년 2월 27일	기획전시 ‘뉴칼레도니아 일계인전’ 개최
10월 2일	특별전시 ‘푸른 눈의 인형전’ 개최
10월 16일	특별전시 ‘콜로라도일계인 100년전 록키산맥 밑에서’ 개최
2008년 3월 18일	특별전시 ‘일-브라질 교류년 브라질 일본이민백주년기념사진전-신세계로 건너간 일본인-’ 개최
9월 17일	특별전시 ‘윈더 아이스~미래로 연결하는 어린이들의 표정~’ 개최
12월 9일	특별전시 ‘NOSSAS LENTES 우리들의 렌즈’ 개최
2009년 4월 3일	특별전시 ‘축 페루 일본인 이주 110주년/일본에의 페루인 20주

20) 2011년 2월 일본현지 해외이주자자료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년사진전' 개최
4월 28일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 특별전 '요코하마 발 해외이주' 개최
7월 10일	특별전시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 하와이일계인 역사화보집' 개최
2009년 8월 11일	아마존 일본인 이민 80주년 기념 특별전시 '아마존에 건너간 일본인의 궤적' 개최
10월 3일	아마존 일본인 이민 80주년기념 특별강연 '아마존에 사는 일계인-열대우림과 삼림농업' 개최
10월 16일	기획전시 '바다를 건너 신부이야기' 개최
2010년 3월 9일	특별전시 '이민생활-해외일계사회에서 먹는 것, 전달하는 것, 즐기는 것, 축하하는 것'
8월 13일	특별전시 '일계2세병사가 본 종전직후 일본'

해외이주자료관에서는 일본인 해외이주자나 일계인의 현지에서의 고난과 경험 등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일본 국내의 다문화공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시관의 견학이나 워크숍을 통하여 국제협력이나 이문화에 대한 흥미도 진작시키고 있다.

2. 해외이주자료관 전시자료의 특성

해외이주자료관은 오프라인(Off-line) 전시관으로서 상설전시관, 특별기획전시관, 정보전시관, 일반수장고 및 사진수장고, 도서자료실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온라인(On-line)자료실로서는 웹사이트와 디지털자료관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면 이들 각각의 전시관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상설전시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크게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관은 해외이주역사, 신세계로의 참가, 일계인 구술생애사, 일본 속 일계인과 세계 속의 일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인의 해외이주역사테마는 1639년 이후 2세기 동안 계속된 일본의 쇄국정책이후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1866년 발행된 패스포트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일본과 하와이왕국 정부 간 체결된 '이민협약'에 의해 하와이에 건너가 사탕수수 밭에서 일한 '관약이민'이나 공부를 위해 북미에 건너간 유학생, 남미로의 국가정책에 의한 이주, 제2차세계대전 중 혼란기로부터 1945년 전후 이주 재개 때까지의 시기를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신세계로의 참가 테마코너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고국을 떠나 해외로의 미지의 땅에 이동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전시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단순히 돈벌이 노동자로서의 집단, 혹은 일본정부의 인구감소 정책의 희생자로서 '기민'이라는 종래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일본인 이민자들

이 새로운 문명형성에의 참가자라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문명형성에 참가한 일본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왜 해외이주를 결심하고 현지의 어떤 곳에서 정착하였으며, 현지사회에서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 라는 인물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계인의 구술생애사 테마코너에는 해외에 이주한 일계인, 혹은 그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생애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각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현지에 태어나 자란 일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몇 단계를 공유하면서 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일계인의 출생, 교육, 성인으로서의 성장과정, 노령화 등 인생의 4 단계로 구분하여 국가, 지역,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 속의 일계인 및 세계 속의 일계인코너에는 일본인들이 본 일계인과 해외에서 일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상이점에 초점을 두고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식 복이나 축제 등 해외에서 일계인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일본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일계인들이 그들 각각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광경을 소개함으로써 글로벌시대 일본 내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일계인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해외이주자료관 전시문화 공간구성²¹⁾

전시공간 구성		전시내용 및 특성
상설전시관	오프라인 (Off-line)	모두 4개의 테마로 구성 제1관 해외이주의 역사 제2관 우리들 신세계에 참가한다! 제3관 일계인 구술생애사(Life History) 제4관 일본 속의 일계인, 세계 속의 일계인
특별 및 기획전시관		이주관련 특정 테마 발굴 및 전시(여성이민자, 일계인 2세 병사 등)
정보전시관		이주관 영상, 음성, 화상으로 전달하는 이주자의 생활
일반수장고, 사진수장고		세계각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의 수장
도서자료실		해외이주 관련 도서 및 문헌자료, 마이크로필름
웹사이트 구축 ²²⁾	온라인	해외이주자료관 소장자료 DB구축과 검색시스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On-line)	세계이민관련 자료의 허브로서 이주자료의 디지털네트워크화 프로젝트 수행

특별 및 기획전시관에서는 해외일계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크게 다루어지지

21) 2011년 2월 일본현지 해외이주자료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2) http://search.jomm.jp/search/html/koukai/k_search.html.

않았던 테마에 초점을 두고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전시에는 여성이민자들에 초점을 둔 ‘바다를 건넌 신부이야기(2009년)’ 등 해외이주자료관의 학술 프로젝트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패전기념일에 개최한 특별전시 ‘일계인 2세병사가 본 종전 직후 일본(2010년)’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시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조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하와이출신의 일계인 2세병사의 존재와 갈등에 대하여 일계인병사 자신이 촬영한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상설전시실 정보관에서는 인류가 탄생하기 시작한 이후 이동의 역사를 표시하는 ‘세계이주지도’를 조작하거나 ‘증언영상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시청하거나 ‘디지털 이주공간’에서 컴퓨터로 이주에 관한 데이터를 찾아보거나 퀴즈에 도전하는 등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고, 만지고, 조사하고, 즐기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을 할 수 있다. 일본인 해외이주자들의 전쟁 전의 체험, 이주과정,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 등 9개 테마로 구성된 68명의 증언영상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증언영상’코너에서는 이주 현지에서의 고난과 기쁨, 슬픔, 인생담 등을 이주자가 직접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해외이주자료관의 일반수장고와 사진수장고는 상설전시와 특별기획전시 이외에 전시품의 소장자료를 보관하는 곳이다. 이들 전시품은 세계각지의 일계인 단체나 이주자, 혹은 그 가족들이 보내오거나 기증한 귀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자료 하나하나에는 소유자의 역사나 추억, 흘린 땀과 눈물들이 배어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이외에도 승선자 명부나 이주신청서, 도항허가증 등 귀중한 아카이브자료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이주관련 자료와 종류는 일본에서 가장 유일한 곳으로 일반수장고 이외에도 사진수장고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주당시의 상황을 전달하는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표 10> 해외이주자료관의 소장자료²³⁾

자료형태	소장 건수
문헌 및 도서자료	약 20,000건
아카이브자료	약 5,000건(명부, 여권, 신분증명서, 계약서 및 증서, 신문, 회보, 보고서, 교과서 등)
사진, 영상, 음성자료	약 10,000건(사진, 음화, 양화, 비디오필름, 카세트테이프, 레코드 등)
표본자료(휴대물품)	약2,000건(여행 짐, 트렁크, 일용품, 농기구, 어구, 북, 야구 용구, 오락용품 등)

23) 海外移住資料館 (2010) 『海外移住資料館だより』2010特集号、p.3.

도서자료실에는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국내외에서 이주관련 다양한 문헌자료를 수집한 ‘도서자료실’이 병설되어 있다. 도서자료실은 이주관련 자료에 특화된 자료실로서 연구자나 이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곳에는 도서자료, 영상자료, 그리고 이주자 송출에 관련된 귀중한 서류나 해외일제인 단체의 회보,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자신문 등 도서나 문헌자료 약 2만 건, 아카이브자료 약 5천 건, 사진이나 영상자료 약 1만 건, 표본자료 약 1만 건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중 현재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13개국 26지의 일자신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1900년대 전반에 발행되어 지금은 폐간된 일본어신문 20지 등도 마이크로필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일제인 관련 이민사박물관은 요코하마에 위치한 JICA가 운영하는 해외이주자료관, 히로시마디지털박물관, 야마구치현에 있는 일본하와이 이민자료관 등이 있다. 이들 중 해외이주자료관은 일본국내 및 세계 각국으로 일본인의 해외이주를 테마로 한 박물관과 자료관을 연계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²⁴⁾.

해외이주자료관은 웹사이트 구축과 이주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온라인(On-line)서비스도 충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자료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제인 관련 사진과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인터넷 상의 자료전시,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검색 등을 실현하여 상호 소유하고 있는 이주관련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히로시마디지털이민박물관, 오키나와볼리비아역사자료관, 아르헨티나일본인이민사자료관 등 3개의 인터넷박물관이 개설되어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해외이주자료관은 일본 학생들의 견학이나 국제이해의 시간 등 체험학습 장소로서 많은 학교가 자료관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주변에 차이나타운과 외국인 묘지 등이 있어 요코하마와 해외와의 역사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린시설도 함께 견학할 수 있으며 전시 중 일제인 강제수용이나 이주자의 생활, 직업 등 테마별 견학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외이주자료관에서는 학습교재용 이민트렁크나 그림연극, 이민카드놀이 등을 개발하여 학습현장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민트렁크는 이민관련 수업이나 사전학습을 지원하는 교재이다. 상설전시물품의 테마마다 역사나 경험, 공헌 등에 관련된 휴대용교재나 해설서 등이 준비되어 있다. 그림연극은 일제인들이 일본에서 경험하는 학교생활이나 가족문제에 대하여 실화를 바탕으로

24) 송석원(2009) 「일본정부의 일제인(日系人)정책-JICA의 해외일제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을 통하여 간단하게나마 일계브라질인의 이주рут나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민카드놀이는 학생들이 카드놀이를 통하여 해외로 이주한 일계인의 역사, 이들 이주자의 생활과 기분, 일본에 살고 있는 일계인의 생활 등 글로벌시대 이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본인의 브라질 이주사를 정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인의 해외이주와 1980년대 전후 글로벌시대 일본인의 환류 현상에 의한 관심고조로 어떻게 해외이주자료관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어떤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지 전시문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근대 일본의 에도말기 1866년 이후 시작된 일본인의 하와이 진출과 이주역사, 그리고 1924년 미국의 '배일이민법' 제정에 따른 일본인의 남미, 특히 브라질로의 이민 역사에 대해 개괄하였다.

1945년 전쟁 전후 해외로 이주한 일본인 수는 250만 명에 달하며 해외이민이 재개된 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해 일본이 주권을 되찾게 된 1952년 이후이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남미에서 일계인들이 유입되면서 일본에서 '일계인'이란 용어가 1990년 입국관리법 개정 이후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일계인'의 의미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일계인이란 주로 1924년에 미국에서 '배일이민법'을 제정으로 일본인 이민자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다음해인 1925년부터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주하는 일계브라질인의 이주사, 그리고 글로벌시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이후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일계브라질 사회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일계인'이라는 용어는 사용자에 따른 사용 장면이나 활용방법에 따라 그 단어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조차 상당히 변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계인의 브라질 이주사는 1908년 4월 고베항을 출발한 카사토마루(笠戸丸)에 승선한 781명의 일본인 이주자가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함으로써 남미로의 일본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인의 브라질 이주배경에는 농촌지역의 만성불황, 1945년 전후 경기불황으로 일본정부가 농촌으로부터 남미

브라질로의 이민송출을 중요한 해결책으로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구마모토, 후쿠오카, 오키나와, 홋카이도, 히로시마현 등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된 브라질 이민은 1908년부터 1941년까지 도합 약 18만 명을 초과하였다.

둘째, 1980년대 일본의 글로벌화로 일계인 1세부터 시작되어 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급증한 일계인 2세~3세로 확대된 남미로부터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은 당초 일본정부가 '일계인의 돈벌이 노동', '일계인의 U턴 현상'이라고 부르며 불법취업외국인의 유입을 막고 일계인을 합법적인 노동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전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의 노동력부족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다

셋째, 1908년부터 시작된 일본인의 브라질 이주역사와 1980년대 전후 일계인의 환류현상이 초국적인 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에서 일계인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에서 2002년 해외이주자료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해외이주자료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계인 관련 사진과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인터넷 상의 자료전시,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검색 등을 실현하여 상호 소유하고 있는 이주관련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일본인 이주사나 일계인의 이주지에서의 고난과 경험 등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일본 국내의 다문화공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시관의 견학이나 워크숍을 통하여 국제협력이나 이문화교육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일본 근현대 이민사에서 일본 이민자들이 왜 북미의 미국 서부지역 진출 이후 남미 브라질로 집중되어 왔는지에 대해 이주사적 관점에서 이들 이민자들의 이동과 일계인의 일본 환류를 쌍방향에서 고찰했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이주자료관의 이주사와 전시문화 고찰을 통하여 일계인의 이주사를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대적 시각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사회의 다문화와 재외동포자료관의 건립과 활용 측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参考文献】

- 임성모(2008)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학사학연구』 제103집.
- 임영언(2010) 「일계인(日系人)디아스포라: 초민족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日本文化學報』 제46輯.
- 송석원(2009) 「일본정부의 일계인(日系人)정책-JICA의 해외일계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 石川友紀(1989) 「ブラジルにおける日本移民の地域的分布と職業構成の変遷第二次世界大戦前を中心に」 『琉球大學法文學部紀要』 史學・地理學編32.
- 齊藤廣志(1959) 「ブラジルにおける日系人の人口と地域的移動」 『南米研究』 6.
- 齊藤廣志(1960) 「ブラジルにおける邦人移住者の地域的移動」 『國際經濟研究』 10.
- サンパウロ人文科學研究所編(1997) 『ブラジル日本移民史年表』 無明舎出版.
- 獨立行政法人國際協力機構横浜センター(2004) 『海外移住資料館展示案内-われら新世界に参加す』 算用印刷株式會社.
- 日本ブラジル交流史編纂委員會(1995) 『日本ブラジル交流史日伯關係100年の回顧と展望』 日本ブラジル修好100周年記念事業組織委員會・社団法人日本ブラジル中央協會.
- パウリスタ新聞社編(1996) 『日本・ブラジル交流人名辭典』 五月書房.
- 海外移住資料館(2010) 『海外移住資料館だより』 2010特集号.
- 外交資料館所藏(1918) 「第7回送金目錄」 『在外日本人送金送達雜件』 第三卷參照.
- 米山裕・河原典史編(2007) 『日系人の經驗と國際移動: 在外日本人・移民の近現代史』 人文書院.
- 渡邊博顯(2004) 「間接雇用の増加と日系人労働者」 『日本労働研究雜誌』 No.531/October.
- 渡辺雅子(1995) 『共同研究出稼ぎ日系ブラジル人 (上) 論文編・就勞と生活』 明石書店.
-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
- 해외이주자료관 홈페이지 http://search.jomm.jp/search/html/koukai/k_search.html.

要 旨

This paper takes focuses on the migration history of Japanese Brazilian since 1908 and their returning phenomenon around 1980s, tries to make analyses on the establishment of JICA and some exhibited materials.

Japanese Brazilians mainly lived in the poor rural area, especially after the United States published the anti-Japanese immigration act in 1924, which completely forbid Japanese enter the US, and then the Japanese immigrants to Brazil increased greatly in 1925.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government of Japan had changed the immigration law, which attracted a large number of Japanese Brazilians to return to Japan, and greatly solve the labor problem in the home appliance industry and the car manufacturing industry.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The first Japanese immigrants (781people, mostly farmers) moved to Brazil in 1908 by the *Kasato Maru*(ship) from the Japanese port of Kobe to the Port of Santos of Brazil, which is the beginning to immigrate to the South America. It mainly because of the prolonged depression in the rural area of Japan. However, around 1945, owing to the great recession, exporting immigrants to Brazil became a very important policy for Japan to solve the extreme economy situation.
2. Since 1980, with the globalization of Japan and the requirement to revise the immigration Law from the 1st generation of Japanese Diaspora, the 2nd and 3rd generations of Japanese Diasporas in South America began to return to Japan as foreign labors. This phenomenon also called the ‘U-turn’ phenomenon of Japanese Diaspora. These Japanese Diasporas were accepted as the legal labor force, which solved the labor shortage problem in the home appliance industry and the car manufacturing industry. To some degree, it also limited the illegal foreign labors.
3. The immigration history of Japanese Brazilian began from 1908 and their returning phenomenon around 1980 had gained a great attention in Japan, which made the founding of JICA become possible. In JICA, through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the photos of Japanese Diasporas, the exhibited material in the digital archive and internet and searching material over the network can be easily shared. In addi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center or the culture education department, people can learn the immigration history and experience

the miserable life of these Japanese Diasporas indirect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hy did Japanese Diasporas move to Brazil after the anti-Japanese immigration act of the US and the two way investigation on the returning phenomenon of Japanese Diasporas have a great implication. Furthermore, the investigation on the immigration history of JICA and the exhibited culture contents and the analysis on how to apply the immigration history of Japanese Diasporas into education from the modern perspective, which presented some implications to the multi-cultural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the founding of Overseas Korean data library.

キーワード : Japanese Brazilians, JICA, Japanese Diasporas, Culture Contents, Multi-culturalization, Globalization, Immigration History

투 고 : 2011. 5. 31
1차 심사 : 2011. 6. 11
2차 심사 : 2011. 6. 25